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주소:우140-869,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1가 161 /전화:3271-0427 /fax:718-1781 / 담당자:최동우

문서번호 : 세가본 제 460호(총무-381)	선			지	
시행일자 : 천일국 4년 천력 9월 25일 (2016. 10. 25)	결			시	
경 유 :	접	일자		결	
수 신 : 전국 교구장 및 교회장	수	번호		제	
참 조 :	처	리	과	공	
제 목 : 비원리적 영계메시지 유포 관련 공식입장	담	당	자	람	

1. 귀 교회에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삼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최근 '천상에서 지상의 간부들에게 내린 참아버님의 특별말씀'이라는 제목의 비원리적인 내용의 영계메시지(작성자: 김영순)가 유포되어 협회의 공식 입장을 공지 하오니 전국 교구와 교회의 목회자는 축복가정과 식구들이 올바른 신앙 전통을 확립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김영순 씨의 비원리적 영계메시지 개요

김영순 씨는 영계 리포터를 자칭하며 2016년 10월 6일(목)자로 '천상에서 지상의 간부들에게 내린 참아버님의 특별말씀'이라는 제하의 비원리적 영계메시지를 유포했다.

나. 김영순 씨의 비원리적 영계 메시지의 주요 내용

- 1) 참어머님의 위상과 말씀에 대한 부정
- 2) 천일국 경전에 대한 정통성 부정
- 3) 김영순 본인에 대한 특별한 영적 권위 부여

다. 협회의 공식 입장과 올바른 섭리적·신앙적 관점

1) 참부모님께서서는 최종일체를 이루시고 완성하셨다.

① 참부모님께서서는 2010년 천력 5월 8일(양 6.19) 오전 2시 20분과 5월 15일(양 6.26) 오전 3시 25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하나님과 종적으로 일심·일체·일념·일화·일행을 이루시고 양위분이 횡적으로 최종일체를 이루신 터전 위에 구약·신약·성약시대의 완성·완결·완료와 전체·전반·전권·전능의 시대를 선포하셨다.

② 2010년 7월 8일 천정궁과 7월 24일 미국 뉴욕 맨해튼 센터를 비롯해 이후 세계 각처에서 열린 ‘천지인참부모 정착 실체말씀선포 천주대회’를 통해 참부모님 양위분께서는 최종일체를 이루어 복귀섭리를 완성·완결·완료하시고 이 땅에 오신 모든 책임과 사명을 완성하셨음을 선포하셨다.

2) 천일국 경전의 정통성

① 참부모님께서서는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천일국 경전을 편찬하신 것이지, 8대 교재·교본 중 하나인 천성경을 수정한 것이 아니다.

② 8대 교재·교본으로서의 천성경은 2003년 편찬되었으며, 2000년 이전의 말씀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기원절’, ‘천지인참부모’, ‘후천 시대’, ‘안시일’, ‘천력’, ‘천일국 헌법’ 등 천일국 시대의 핵심적인 말씀이 담겨 있지 않다.

③ 참부모님께서서는 천일국 시대에 선포하신 말씀을 비롯하여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마지막 기도까지 참아버님의 생애의 말씀을 전체를 총망라한 천일국 경전으로서의 ‘천성경’, ‘평화경’, ‘참부모경’을 편찬하셨다.

④ 더불어 참아버님께서서는 8대 교재교본으로서의 ‘천성경’에 대한 수정을 말씀하기도 하셨다. “천성경에 대한 내용인데, 내가 여기 고칠 것이 많아요. ‘몇 페이지, 몇 페이지가 바로 고칠 것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와요.”(2009.4.27. 말씀선집 610권 278페이지) 하지만 이를 완성하지 못하고 참아버님께서서는 성화하셨고, 참어머님께서 이를 이루신 것이다.

3) 천일국 시대, 오직 참부모님께서 영적 역사와 지상의 섭리를 직접 주관하신다.

① 비원리적인 영계메시지를 보면 마치 참아버님께서 김영순 씨에게 지상인들에게 영계를 가르치는 특별한 영적 권위를 부여한 것처럼 서술되어 있다.

② 실제 천일국 시대는 하늘부모님과 일심·일체·일념·일화를 이루신 참부모님 양위분께서 영적 역사와 지상 섭리를 직접 주관하시는 시대이다.

③ 천주성화 이후 3년 시묘정성을 통해 하늘부모님과 참아버님 그리고 참어머님께서 삼위일체를 이루신 토대 위에 문효진님과 문홍진님을 참가인과 참아벨로 세우시어 참가정 사위기대를 완성하셨다.

④ 참부모님께서 영원한 본향인 천정궁을 중심으로 천일국 안착(安着)의 초석이 되고 모델이 될 “본연의 에덴동산”을 “HJ 천원”이라 명명하시고, 천일국의 안착을 위한 깊은 정성 가운데 그 원대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해나가고 계신다.

⑤ 영적역사의 정통성은 오직 참부모님께 있으며, HJ 천원단지 내의 천주청평수련원을 통한 청평역사도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계속될 것이다. 한때 김영순 씨가 이상현 선생의 영계메시지를 전하며 영계 리포터로서의 사명을 수행한 적이 있었으나 그 사명은 이미 종료되었다. 지난 천일국 3년 후반 참부모님께서 한국협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영계 리포터로서의 김영순 씨의 사명 종료에 관한 말씀을 정호웅·김영순 가정에게 통보하셨다.

⑥ 이러한 상황에서도 김영순 씨는 영계리포터를 자칭하며 계속해서 영계메시지를 작성·유포하여 참부모님의 섭리적 방향과 근간을 훼손하며 축복가정과 식구들의 신앙생활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이에 한국협회는 정호웅·김영순 가정을 직접 찾아가 문제의 발단과 경과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 여부에 관한 협회의 입장을 전하고 영계메시지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였다.

⑦ 참부모님께서 명하신 영계리포터 사명 종료에 대한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축복가정으로서 그 신앙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다. 무엇보다 김영순 씨의 영계메시지는 통일가의 전통과 신앙적 기준에 비취볼 때 그 내용이 지극히 비원리적이다.

⑧ 이에 한국협회는 김영순 씨의 영계메시지 작성 및 유포가 하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비원리적이며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

라. 김영순 씨는 영계 리포터를 자칭하며 지속적으로 비원리적인 내용이 담긴 영계메시지를 작성하여 천지인참부모님의 섭리적 경륜에 따라 정도의 길을 가는 통일가 축복가정과 식구들을 혼란케 하고 있다. 전국 교구와 교회에서는 식구들이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김영순 씨의 비원리적인 영계메시지와 이를 이용하여 혼란을 주려는 집단에 현혹되지 않도록 강력히 지도해 주시기 바란다.

3. 전국 교구와 교회의 목회자는 위에서 언급한 김영순 씨의 비원리적 영계메시지에 대한 한국협회의 공식적인 입장과 지침을 숙지하시어 축복가정과 식구들이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중심한 통일가의 종적인 신앙 전통을 수호하고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Vision 2020 국가복귀의 성업을 향해 전진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끝.”

한국회장 유 경

